

2022년 11월 6일 “예수님의 비유(19) 기다리시는 아버지”(눅 15:11-32)

이 비유는 구원받는 인간의 이야기와 더불어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아버지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1] 둘째 아들의 탕진과 귀향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난 아들이 파산하여 처참한 지경에 이르자 제정신이 들어 아버지께 돌아가 품군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17-19 절).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너무 기뻐 환대하며 잔치를 베풁니다.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24 절)

이 아들은 이처럼 극진한 대우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이 고달프고 두려워서 고난을 피하고자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고귀한 자녀로서 우대받고, 아버지의 부요함에 참여하도록 환대를 받습니다.

[2] 맏아들과 야기된 갈등

맏아들은 아버지의 후한 환영을 보고 화가 나고 불쾌했습니다(29-30 절).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것은 모두 네 것이며 아우의 귀환은 기뻐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간에 갈등이 생긴 원인은 쓸데없는 자를 향해 허비하는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는 자신의 도덕적 판단입니다. 그도 잘못된 사람이 용서받는 것이 은혜임은 믿지만, 우대하는 것은 과하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큰 아들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야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우도 형도 둘 다 아버지의 본심을 알지 못하여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을 용서하심 속에서는 기쁨과 우대도 한 패키지에 안에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성의 적용은 기쁨과 우대를 용납하지 못합니다(맏아들). 도덕 자체는 선하지만, 도덕주의는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덕주의는 율법주의와 완벽주의와 같은 뿌리를 갖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뭔가 부족하고 더 좋아져야 한다는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가치를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약점과 단점이 있을 지라도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받아준다면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며,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 개인의 도덕적 기준의 적용이나 율법의 문자적 적용보다는 자유롭고 인격적인 성령이 도움으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긍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인생은 사람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형제가 다른 측면이지만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이 무지를 넘어 아버지를 알아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부요해집니다. 당신을 알리고 싶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까?
2.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